

【논문】

## 『만선일보』를 통해 본 만주국의 모성 담론\*

—〈어머니차지〉 시리즈를 중심으로—

이진아\*\*

### 차례

- I. 머리말
- II. 『만선일보』 가정 지면과 〈어머니차지〉 시리즈
- III. 만주국의 선계 어머니라는 이름과 정체성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만주국의 모성 담론에 대해 『만선일보』를 통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1942년 5-10월에 게재되었던 〈어머니차지〉 시리즈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만선일보』 가정 지면에서는 북합민족국가 만주국으로 이주했던 1930-1940년대 조선 가정의 모습이 총체적으로 형상화되었다. 〈어머니차지〉 시리즈는 모성과 관련해서 가장 장기적으로 연재되었던 시리즈 기사였다. 여기서 조선 여성은 선계 어머니로서 위치와 역할이 부여되었다. 그녀들에게 의식주를 담당하는 아내 역할과 양육/교육을 수행하는 어머니로서 의무 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차지〉 시리즈에서는 조선 여성이 언어와 예절, 의식주, 교육, 시간, 질병 등을 관리하는 각종 규범과 지침 등이 세세하게 제공되었다. 동시에 이들에게는 내지 부인과 내지 어머니, 즉 일본 여성이 지배적 정체성의 본보기로 언급되었다. 조선 여성의 단점과 약함, 보완사항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어머니차지〉 시리즈를 통해 조선 여성은 일본 여성을 모방하면서 새롭게 거듭날 것이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A2A03048910)

\*\* 동아대학교 아세안연구소 조교수.

요청되었다.

주제어: 만선일보, 만주국, 모성, 선계 어머니, 일본 여성

---

## I. 머리말

이 글에서는 『만선일보』(1942년 5-10월)에 게재되었던 <어머니차지> 시리즈를 중심으로 해서, 만주국의 모성 담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만주국으로 이주했던 조선 여성을 둘러싼 젠더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만선일보』에서는 여성이나 가정과 관련된 다양한 시리즈 기사가 연재되었다. 이를 통해, 만주국 안에서 존재했던 조선인의 위치와 조선 가정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크게 보면 가정, 부인, 아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어머니차지> 시리즈는 조선 여성에게 아내 역할, 어머니다움, 양육 방식, 가사 노동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혹은 규범으로서 제시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는 부재한 편이다.

만주국이라는 대상은 역사와 현실, 실제와 이미지의 층위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란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은 간단치 않다. 이는 지역과 인종, 젠더와 계급 등에 따라서 각각 상이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으며, 응답의 주체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이다.<sup>1)</sup> 윤희탁에 따르면, 만주국이라는 새로운 네이션의 구성원은 “확고한 귀속 의식과 자아 정체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었으며, “만주국인”이라는 이름은 “일본 식민주의자들의 상상 속에서 존재했던 허상적 국민”이었다. 이들이 양가적으로 조합된 대상이 “복합민족국가” 혹은 “계서적 집합체”로서 만주국이라고 상상적으로 명명될 수 있었다.<sup>2)</sup>

---

1) 나카미 다사오 외, 박선영 역, 2013, 『만주란 무엇이었는가』, 소명출판, 3-4쪽.

최근의 선행연구에서 『만선일보』와 관련된 역사와 문학 연구가 다수 제출되었다. 특히 문학 부문은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다.<sup>3)</sup> 그리고 『만선일보』에 연재되었던 여성 수기와 시, 여성 시리즈 기사 등에 관해 일부 논의가 진행되었다.<sup>4)</sup> 앞으로 『만선일보』 연구를 포함하여 만주국의 조선 여성을 둘러싼 젠더 연구는 더 축적될 필요성이 있는 영역이다. 그동안 만주국은 항일독립운동의 주체로서 남성의 영역으로 상상되었던 시공간이다. 여성은 독립운동가의 아내 혹은 보조 역할 정도로 인식되었다.<sup>5)</sup> 아니면 조선 여성이 가족의 생계 때문에 만주국으로 수동적으로 팔려왔다거나 혹은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고 있었다는 이미지가 강조되었던 편이다.<sup>6)</sup> 상대적으로 만주국에서 조선 여성의 일상생활과 언어, 교육, 의식주 등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만주국에서 여성은 무엇이었으며, 동시에 여성에게 만주국은 무엇이었나 하는 질문을 『만선일보』 모성 담론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1942년에

- 
- 2) 윤휘탁, 2013, 『滿洲國: 植民地의 想像이 잉태한 '複合民族國家』, 혜안, 27-45, 482-487쪽.
- 3) 사책, 2023, 「1940년대 『만선일보』의 조선문학 건설 담론에 대한 연구: 『滿洲朝鮮文學建設新提議』의 제기 동인(動因)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35, 13-41쪽; 휴어드, 리하일라 G., 2023, 「1937-1942년 『만선일보』 소재 '만주조선문학' 저술」, 『만주연구』 35, 71-100쪽; 유수정, 2024, 「『만선일보』 '국어란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83, 7-27쪽; 조윤정, 2024, 「만주 이주 전후 현경준의 연보 보완과 『만선일보』 소재 교육 논설의 발굴」, 『현대문학의 연구』 83, 59-94쪽; 천춘화, 2024, 「홍길동의 울도국 '만주': 『만선일보』 연재 『홍길동전』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74, 73-109쪽; 전경선, 2024, 「전시 『滿鮮日報』의 보도와 체제 협력: 東南部治安肅正工作에 대한 후원을 중심으로」, 『역사와 세계』 65, 141-166쪽; 전경선, 2025, 「전시 만주국의 국책사업과 『滿鮮日報』의 행보」, 『만주연구』 40, 11-35쪽; 최현식, 2025, 「이수형과 만선일보」, 『만주연구』 40, 37-80쪽.
- 4) 김영주, 2013, 「『滿鮮日報』의 젠더적 특성과 의미: 수기와 시를 중심으로」, 『어문학』 120, 363-387쪽; 이진아, 2024, 「『만선일보』 여성 담론 연구: 여성 시리즈 기사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83, 95-124쪽.
- 5) 서중석, 2002,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90쪽; 황민호, 2005, 『일제하 만주지역 한인사회의 동향과 민족운동』, 신서원, 13-196쪽; 박영석, 2010, 『만주지역 한인사회와 항일독립운동』, 국학자료원, 15-238쪽; 김병기, 2012, 『김동삼: 만주지역 통합운동의 주역』, 역사공간, 15-180쪽; 박환, 2014,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61-318쪽; 박환, 2016, 『만주벌의 항일영웅』 김좌진, 선인, 15-230쪽; 김주용, 2018, 『한국독립운동과 만주: 이주·저항·정착의 접이시대』, 경인문화사, 21-387쪽.
- 6) 김정일·윤휘탁·이동진·임성모, 2004, 『동아시아의 민족 이산과 도시: 20세기 전만 만주의 조선인』, 역사비평사, 16-333쪽; 이동진, 2005, 「민족, 지역, 섹슈얼리티: 만주국의 조선인 '성매매종사자'를 중심으로」, 『한국학』 28(3), 34-48쪽.

장기적으로 연재되었던 <어머니차지> 시리즈는 만주국 안에서 조선 여성의 정체성과 위계질서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녀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중층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즉 <어머니차지> 시리즈는 만주국으로 이주했던 조선 여성이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재현되면서도, 동시에 이들이 생각했던 어머니라는 형상을 스스로 그려내는 지면이기도 했기 때문이다.<sup>7)</sup> 논의의 순서는 『만선일보』와 가정 지면, <어머니차지> 시리즈, 선계 어머니라는 이름과 정체성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II. 『만선일보』 가정 지면과 <어머니차지> 시리즈

1930-1940년대 만주국에서 『만선일보』는 조선인 이민자의 현실과 담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미디어였다. 『만선일보』는 하나의 조선인 문화장으로서 '왕도정치(王道政治)와 오족협화(五族協和)'를 내세웠던 복합민족국가 만주국의 정체성과 위계질서가 투영되었다. 1937년 7월-1942년 10월에 걸친 방대한 지면에서는 다양한 이슈와 논점이 교차되었다. 날짜별로 발행되었던 8면을 기준으로 보면, 주로 1-2면은 정치와 경제, 3-4면은 생활과 예술, 5-6면은 사회와 여성, 7-8면은 사건 사고와 국제정세 등이었다. 하단에는 각종 광고와 알림, 삽화 등이 게재되었다. 여기서 주로 6면을 통해 여성에 관한 소식과 기사가 다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sup>8)</sup>

---

7) 특정한 담론을 통해 재현된 대상과 주체성의 실제적 발현은 양가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라는 이미지 안에 그려진 여성의 현실은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일정하고 반복적인 이미지는 사회구조 혹은 이데올로기로 작동되면서 행위자의 존재방식에 일정한 담론 효과를 생산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을 둘러싼 이미지와 실제 여성을 일차원적으로 등치시키기는 어렵지만, 이미지와 담론에 이미 현실의 일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수진, 2009, 『신여성, 근대의 과잉: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 담론과 젠더정치, 1920-1934』, 소명출판, 30-32쪽.

8) 해당 시기는 현재 확보가 가능한 영인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937년 7월, 1939년 12월, 1940년 1-12월, 1941년 1-3월, 11-12월, 1942년 1-10월 분량에 해당된다.

남성과 여성에게 할당되었던 고전적인 이분법 혹은 젠더 분업이 『만선일보』의 지면 구성에서도 대체적으로 보여진다고 할 수 있었다. 이는 공적/사적 영역, 노동/가족, 정치/생활, 생산/재생산 등을 경계로 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의무가 담론적인 차원에서 부여되는 논리 구조였다. 예를 들면, 남성은 재만 동포나 개척 전사로서 그리고 여성은 가정 부인이나 선계 부인 등으로 호명되면서 뚜렷하게 구별된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가시화되었다. 민족적인 동질성 안에서도, 젠더라는 층위에서 『만선일보』의 지면은 이들에게 비동질적으로 부여되고 있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로 『만선일보』 6면에서 여성과 부인, 아동, 가정 등에 관해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이는 일회성 기사, 연재 시리즈, 기고문, 인터뷰, 좌담회, 문답, 생활 정보, 광고, 삽화 등의 형식이었다. 동시에 『만선일보』 6면은 만주국 안에서 시기와 지역, 계절에 따라 변화되었던 조선 가정의 면모가 고스란히 형상화되었던 지면이었다. 그중에서 <어머니차지> 시리즈는 1942년 5월 27일-10월 9일에 걸쳐 총 72회 동안 연재되었다. 비록 1942년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어머니차지> 시리즈는 『만선일보』 모성 담론으로 다룰만한 충분한 분량과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sup>9)</sup>

<어머니차지> 시리즈와 함께 <어린이차지>가 가정 지면을 통해 일정 기간 연재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고재봉에 따르면, 『만선일보』에서 상당한 분량의 아동문학이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조선인 학교의 절대적 부족과 교육정책의 미비”로 인해, 아동 지면은 “대부분 미취학 상태인 아동”의 교육적 도구이기도 했다. 여기서 전반적으로는 “일본어와 일본 문화”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조선 아동에게 “정상성의 전형”, 즉 지배적 정체성의 본보기로 “깨끗한 교복을 입은 여학생” 같은 일본 아동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다.<sup>10)</sup> 만주국으로 이주

9) 1942년 발행판의 경우, 전체 지면 자체가 4면으로 한정되는 호수가 많았다. 4면 판에서는 가정 지면이 거의 4면에 있었으며, <어머니차지> 시리즈는 2면에 배치되었다.

10) 고재봉, 2022, 『『만선일보』 소재 아동문학과 삽화가 만들어낸 국민 표상의 의미 연구』, 『비평문학』 85, 11-30쪽.

했던 조선 아동에 대한 담론 역시 여성과 같은 지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1930-1940년대 만주국은 ‘일만선로몽(日滿鮮露蒙)’이라는 복합민족으로 구성되었던 이민자 사회였다. 이는 제국 일본이 수립한 실험적인 괴뢰국(puppet)이자 의사(擬似) 국민국가이기도 했다. 프래신깃트 두아라에 따르면, 민족협화(民族協和)와 왕도주의(王道主義)는 대표적인 만주국 이데올로기였다. 이는 각각 다민족이 협력하여 공존공영을 지향한다는 것과 함께 동양적 유교 이념에 기초한 정치를 수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아가 그가 명명했던 ‘순수성의 체제’는 개인보다 우월한 민족의 가치 그리고 신성함과 유구함을 강조한 표상이 생산되었던 역사적 메커니즘을 보여주었다.<sup>11)</sup>

다시 말해, 민족이라는 이름은 순수성의 기호와 상징을 보여주면서도, 가속적이고 단선적인 시간을 통해 구성되고 있었다. 순수성은 이민자와 개척민, 여성과 아동 같은 존재방식을 통해 재현되기도 했다. 두아라의 표현대로, 이는 ‘왕실의 유구함, 원시인의 자연스러움, 농부의 뿌리, 여성의 모성이나 순결, 어린이의 순진함’ 등이었다. 이러한 체제를 통해, 개인은 국민국가를 향해 종속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만주국 이데올로기라는 사회구조 안에서, 복합민족 행위자들은 저마다 ‘역사의 주체’ 되기를 역설적으로 수행하기도 했다.<sup>12)</sup> 이들은 체제나 이데올로기가 일방향적으로 투영되는 대상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조정우에 따르면, 조선인 이민자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 만주국의 건설과 오족협화를 수행하는 ‘개척민 혹은 개척의 전사’로서 표상되었다. 이는 일본의 만주이민정책의 재편에 따라서, 원리상으로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동등하게 ‘개척민 칭호를 부여’ 받았기 때문이다. 크게 보면, 이는 만주국 이민자 사회의 통합과 개발을 위해, ‘조선인과 일본인이 내선일체하여 만주의 농토를 개척한다’라는 목표였다. 선만척식회사는 경성일보사가 주최했던 조선대박람회에서 “만주개척민관”을 출품하여 참여하였다. 여기서 “만주 개척”과 연관된 이미지(일장기와 만주국기, 만

11) 두아라, 프래신깃트, 한석정 역, 2008,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 70-86쪽.

12) 두아라, 프래신깃트, 2008, 위의 책, 76-83쪽.

철 특급열차, 개척촌, 감시탑, 트랙터, 개척민 부부 등)가 집약되고 있었다.<sup>13)</sup>

조선인은 이주 이후 만주국에서 선계(鮮系)라는 민족명으로 상상되면서 일계(日系)나 만계(滿系)와는 상이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즉 1930년대 이후 만주국으로 이동했던 조선인들은 복합민족국가라는 사회구조 안에서 ‘재만 동포, 만주 조선인, 선계 개척민’ 같은 이름을 통해 언어화되었다. 『만선일보』의 모든 지면을 살펴보면, 이들이 이민자 혹은 개척민으로 적극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그리고 만주국의 국민이자 조선인으로서 민족 정체성을 중층적으로 수행하고자 했다는 점을 잘 파악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조선인의 존재방식은 정치와 경제, 언어와 교육, 의식주와 질병, 문화와 예술 등에 걸쳐 있었다.

[자료 1]을 통해, 1942년 5월 27일-10월 9일에 걸쳐 연재되었던 <어머니차지> 시리즈를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이는 시리즈별로 제목이 각각 부여되었으며, 필자명이 표시되는 경우도 있었다. 필자들은 만주국에 거주했던 일본인 혹은 조선인이었으며, 직업인이나 관료, 가정 부인 등이었다. 주제를 보면, 크게 아내 역할과 어머니로서 의무, 국가를 위한 봉사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예절, 일본어, 집, 가계, 결핵, 도덕, 적리, 결혼, 저축, 일과표, 페스트, 성격, 공중 도덕, 요리 등 매우 다양한 편이었다. 한 회당 분량은 보통 8-10단락으로 구성되면서, 글자수로는 2,000자 내외 정도였다.

본 연구에서는 『만선일보』 모성 담론 안에서 조선 여성이 호명되었던 다양한 이름들을 ‘선계 어머니’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선계 어머니라는 이름은 여성에게 모성이 선형적이거나 자연적으로 부여되었던 것이 아니라, 복합민족국가 만주국에서 정체성과 위계질서가 투영되었던 일종의 담론구성체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만선일보』에서는 ‘일계, 만계, 선계, 한계, 몽계’라는 다양한 민족명이 사용되고 있었다. 조선 여성의 신체는 특정한 이름으로 인용되고 수행되었던 “고도의 물질화의 결과물이자 의미의 구현체(bodies that matter)”였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현실에서 그녀들은 ‘OO 여성’, ‘OO 여자’, ‘OO 처녀’, ‘OO 부인’,

13) 조정우, 2020, 「『불령선인』에서 ‘개척의 전사’로: 중일전쟁 이후 조선인 만주이민정책의 재편, 『만주연구』 30, 156-160쪽.

‘OO의 어머니’ 같은 인식 가능한 이름을 통해 기존의 담론 구조 안에 기입될 수 있었다.

1942년 『만선일보』 〈어머니차지〉 시리즈는 공통적으로 만주국의 선계 어머니라는 이름이 형상화되는 공간이었다. 이를 보면, 만주국의 조선 여성은 조선 가정 안에서 언어 문제에 주목하면서도, 자녀들의 가정 교육을 직접 담당하였다. 동시에 그녀들은 가족의 의식주와 시간, 질병을 세세하게 관리하면서, 만주국의 구성원으로서 공적 역할까지 요청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조선 부인, 현모양처, 총후 여성, 조선 여성, 조선의 어머니, 조선 여자, 조선 동포 부인, 재만 처녀’ 등의 이름으로 호명되었다. 그녀들에게 ‘일본의 어머니, 내지 부인, 일본의 부인, 내지 어머니, 전시 일본 부인, 황군의 어머니, 군국의 어머니’ 등을 모방할 것이 강조되기도 했다. 즉 조선 여성에게 일본 여성이 지배적 정체성의 본보기로 언급되었다. 만주국에서 〈어머니차지〉 시리즈는 “조선의 어머니”에게 “공기(公器), 독본(讀本)”이었다.<sup>15)</sup>

### III. 만주국의 선계 어머니라는 이름과 정체성

#### 1. 언어 문제

첫 번째, 만주국에서 선계 어머니는 이민자로서 언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언어는 모국 혹은 고향을 떠난 이들에게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이다. 〈어머니차지〉와 같은 지면에서 “국어어란”과 “국어강좌”가 연재되거나, 모성과 관련된 사건사고 혹은 개별 사례를 소개하는 기사가 연속적으로 배치되었던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어머니차지〉 시리즈에서는 “「국어를 배웁시다」 「일본인과 국어」 「일어는 동어의 표준어, 국어

14) 버틀러, 주디스, 이승준 역, 2026, 『중요한 몸: 성의 담론적 한계에 관하여』, 알렙, 21-251쪽.

15) “훌륭한 황군이 됨은 어머니의 감화력, 먼저 어머니의 힘을 기르자”, 『만선일보』 1942.5.27.

보급에 협력하자 상, 하」 등에서 언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대동아공영권, 동아, 만주” 안에서 “국어, 국제어, 표준어”는 “일본어, 일본말”이었다. 따라서 “일본인, 일본 사람, 내지인”은 일본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조선 사람, 조선인”은 “황국신민”이면서 일본인과 “선조가 같다”라는 이유로 “조선말, 조선어”가 아닌 일본어를 국어로 사용하는 것이 옳바르다는 논리 구조였다. 특히 “조선의 어머니, 조선 부인, 조선 여자”는 조선어 대신 일본어를 정확하게 배워서 습득할 것이 기대되었다. 조선 여성이 일본어로 대화가 어렵거나 조선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유감, 반감, 대수치, 거북스러움, 부끄러움” 등으로 표현되었다. 반대로 조선인이 일본어를 국어로 인식한다는 것은 “참된 일본인, 훌륭한 일본인”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 기사들의 행간을 살펴보면, 표면적인 일본어 강조와는 다른 측면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는 대부분의 조선 여성이 가정에서 자녀와 굳이 일본어로 대화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혹은 일상생활에서도 일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부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조선어로 말하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일본어를 쓰면 건방지다는 비난’이나 ‘잘난 척하는 여자’ 혹은 ‘상대방보다 우월한 듯한 태도’로 간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선어를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다른 민족이 일본어를 이미 사용한다는 사실 역시 간과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보여진다. 이는 대동아공영권과 내선일체가 여성에게는 거시적인 이데올로기보다 ‘일본어 구사’라는 언어 문제로 실감되었던 현실이 〈어머니차지〉 시리즈에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6)</sup>

“...조선 가정에서 자제가 학교에서 국어(일본어: 인용자)를 배워와도 가정에 돌아오면 어머니와 가족들이 국어를 멀리하고 조선말로 이들과 말을 함으로 국어를

16) “국어를 배웁시다”, 『만선일보』 1942.6.2: “일본인과 국어”, 1942.6.14: “일어는 동아의 표준어, 국어 보급에 협력하자(상)”, 1942.7.18: “일어는 동아의 표준어, 국어 보급에 협력하자(하)”, 1942.7.19.

충분히 해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각자가 그 자체의 행복을 희망한다면 어머니들의 조그마한 불편을 참아서라도 자제들과의 회화는 국어로 하려는 결심과 노력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sup>17)</sup> “...어떠한 마음인지 모르나 부인들은 일본 말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부인들은 조선말만 사용한다. 그것을 내지인 측으로부터 볼 때 양해하기에 힘들어 아무리 해도 편을 들 수 없는 바가 있다. ...훌륭한 일본인이 못 된다면 어디에 자체의 행복이 있겠는가, 어머니된 사람들은 참으로 이것을 생각하여 주었으면 하고 생각한다.”<sup>18)</sup> “...황국신민인 조선 여자로서 국어를 모른다면 한층 대수치가 아니겠습니까. 한때에는 여자가 국어를 쓰면 건방지다는 그러한 비난을 받아온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물론 국어를 안다는 여자의 태도가 그냥 저 잘난 척 하느라고 국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폐단이 없지도 않았습시다. 하여간에 요즘에는 누가 국어로 말을 거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 되려 못 알아듣고 대답을 못 하는 편이 거북해지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만으로 펍 달라졌다고도 보겠습니다.”<sup>19)</sup>(강조는 인용자, 이하 동일)

일본어 강조와 연관되는 측면에서, 만주국에서 조선 여성의 본보기는 “일본의 어머니, 일본의 부인, 내지 부인, 내지 어머니, 전시 일본 부인” 등이었다. 그리고 “군국의 어머니, 황군의 어머니”라는 표현도 있었다. 즉 일제 어머니는 “나라, 가정, 남편, 어린 애, 아버지”를 위해 “모든 일에 착수”하면서 고통을 참고 견디는 인고를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들은 아들과 남편을 전쟁에 보낼 때도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들을 “일본의 용사” 혹은 “천황폐하의 적자”로 간주하는 “위대한 감화”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었다. 즉 조선 여성에게 “일본 부인의 귀감(龜鑑)”이 지배적 정체성의 본보기로 제시되었다.

무엇보다 일본 여성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모성의 담지자로서 평가되었다. 이에 비해, 조선 여성의 ‘어머니 인식’, 즉 모성은 일본 여성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즉 “조선의 어머니, 우리네 어머니, 아낙, 조선 동포 부

17) “국어를 배웁시다”, 『만선일보』 1942.6.2.

18) “일본인과 국어”, 『만선일보』 1942.6.14.

19) “일어는 동아의 표준어, 국어 보급에 협력하자(상)”, 『만선일보』 1942.7.18.

인”은 “자식은 그 가정의 자식” 혹은 “그 자식에 의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과 고전적인 관념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군센 각오, 남자들과 같이 싸워나간다는 마음, 노력과 고생”을 통해 새롭게 교정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그리고 이들에게 “내지 부인들에게 지지 않을 훌륭한 태도”가 요구되었다.<sup>20)</sup>

“세계에서 가장 강한 우리 일본의 어머니는 인고의 어머니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어린 애들을 위하여, 또 아버지를 위하여 스스로 나아가 모든 일에 착수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일지라도 참고 견딤니다. 이것이 일본의 부인이고, 일본의 어머니입니다. …조선의 어머니들도 이것을 본받아 몸소 성전원수에 협력하여 황국을 지켜서 충후의 완벽을 기합시다.”<sup>21)</sup> “...어머니들은 더 한층 군센 각오로서 어려운 이때를 남자들과 같이 싸워나간다는 마음을 깊이 새겨 주셔야 합니다. 자기 아들이 곧 나라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나라를 위하여라는 정신이 굳게 새겨지면 이 다음날 그 아들을 보내게 될 때에 내지 부인들에게 지지 않을 훌륭한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sup>22)</sup> “...특히 조선 동포의 부인들의 종래의 「어머니」의 인식은 내지인의 그것과 상당히 거리가 있었던 것이므로, 지금 별안간 그 거리를 멀시한다는 것도 실로 여간한 노력과 고생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는데, 노력과 고생이 필요하다고 하여 「군국의 어머니」 「황군의 어머니」가 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부인들이 그렇게 된다면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고 또한 그 자체들의 행복도 그만큼 빨리 가져오게 되는 것이니까 그 점을 잘 인식하여 「군국의 어머니」로서의 수양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동포 부인들의 종래와 같은 생각, 즉 자식은 그 가정의 자식이며 그 자식에 의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전연 내버리지 않으면 도저히 「군국의 어머니」로서의 길을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sup>23)</sup>

20) “인고의 소유자, 일본의 어머니”, 『만선일보』 1942.6.7; “내지 부인을 모범하여 광영의 날을 맞음시다”, 1942.6.16; “군국의 어머니라함은?”, 1942.6.17.

21) “인고의 소유자, 일본의 어머니”, 『만선일보』 1942.6.7.

22) “내지 부인을 모범하여 광영의 날을 맞음시다”, 『만선일보』 1942.6.16.

23) “군국의 어머니라함은?”, 『만선일보』 1942.6.17.

만주국에서 조선인의 민족 정체성은 무엇보다 언어를 통해서 수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유수정에 따르면, 만주국에서 공식적으로는 “복수국어제”를 채택 하면서 북한민족의 “모어 존중”을 내세웠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본어가 가장 우선이었다. 즉 복수의 국어가 동등한 위치에서 존재하지는 않았다. 『만선일보』는 “재만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조선어 신문”이었지만, 1940년 8월부터 “국어란”이라는 일본어 연재 기사가 등장하였다. 이는 만주국에서 공통언어로서 일본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적 양상은 재만 조선인이 만주국에서 북한민족의 한 구성원이면서도, 제국 일본의 신민이기도 했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sup>24)</sup>

다시 말해, 『만선일보』에서 국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은 조선어가 아닌 일본어였다. 이는 일본인이 사실상 일등 민족이자 “지도 민족”으로서, “동아신질서와 신체제”를 이끌어야 한다는 제국주의 논리가 투영되었던 결과였다.<sup>25)</sup> 이는 『만선일보』 발행인과 편집자의 입장에서 구조적인 한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민족협화와 복수국어라는 이데올로기 안에서, 이들이 만주국에서 일상적으로 조선어를 읽고 쓸 수 있었던 도구이자 수단이 『만선일보』이기도 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즉 『만선일보』라는 미디어는 선계라는 정체성이 양방향적으로 생산되면서 교차되었던, 중층적인 문화장이었다.

## 2. 태도와 성격

두 번째, 만주국의 모성 담론에서 조선 여성의 태도와 성격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어머니차지> 시리즈 기사에서는 조선 여성의 태도와 자세, 습관과 성격, 옷차림과 꾸밈새 등에서 태생적인 단점 혹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지적되기도 했다. 요약하면, 조선 여성은 기질이 유난히 약하면서 외모상으로 단정치 못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판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조선 여성이 척박하고 어려운

24) 유수정, 2024, 『『만선일보』 ‘국어’란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83, 8-10쪽.

25) 유수정, 2024, 위의 논문, 15-18쪽.

환경에서도 명랑함과 활발성, 청결성과 부지런함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논리 구조였다. 즉 조선 여성은 일상생활에서 장점을 회복하면서 단점을 보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이들에게 “생활에 희망을 갖도록 하자”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왜냐하면 “희망을 갖는 곳에는 반드시 명랑이 닳고 활발”해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조선 여성의 외적인 모습은 ‘겉보기에 흥하고 호감을 얻기 힘든 모양’이면서 다른 민족에게 모욕 받을 대상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조선 부인=저급한 견본”으로 비유되면서, “북합민족국의 수도 신경”에 있는 백화점 앞에 진열되었던 본보기로 언급되었다. 조선 여성의 개인적인 행동이 “일반으로 조선 부인은 그렇게 게으른 성격이라는 관념”으로 확장되는 것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에게 “여자의 온순, 외모, 단정”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여자의 교육”을 통해 “새 여성, 새 아내, 새 어머니”가 될 것이 요청되었다.<sup>26)</sup>

“...요즘 흔히 흘러오는 말 중에 **조선 여성은 유난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야 어느 나라의 여성들을 물론 하고 약한 것인데, 왜 하필 조선 여성들만이 유난스럽게 자주 화제에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같은 조선 사람이니까 우리들의 장점을 모르고 지내는 까닭일까요? ...그런데 **여성이 강하나 약하다는 언제 어느 때임을 물론 하고, 그것이 체질상으로 보아 약하고 강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상으로 본 기질을 말하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sup>27)</sup> “...요즘과 같이 여성들도 남성에게 지지 않을 만치 활발해야 하고 남자들만이 할 줄로 알았던 육체 노동까지도 담당해야 하게 되니까, 조선 여성들의 성격은 약하다고 하는 말도 나오는가 봅니다. ...단지 아래와 같은 것은 조선 여성들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즉 **생활에 희망을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는 곳에는 반드시 명랑이 닳고 활발해지니까 일부에서 비난하는 것과 같은 것도 일소해 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

26) “조선 여성의 성격은 선천적으로 약한가(상)”, 『만선일보』 1942.8.19: “조선 여성의 성격은 선천적으로 약한가, 명랑성과 성격은 별 문제이다(하)”, 1942.8.20: “눈에 거슬리는 꼴을 남에게 보이지 말자, 조선 부인들은 특히 주의하자”, 1942.6.13: “현모양처 되려면 인격 도야에 힘쓰라”, 1942.7.4.

27) “조선 여성의 성격은 선천적으로 약한가(상)”, 『만선일보』 1942.8.19.

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의 생활을 반성하고 부족한 점은 아무 거리낌 없이 보충해 나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sup>28)</sup> “...조선의 제3계급의 부인들이 펍 많이 모여 ...몸가짐이 좋지 못하고, 또 땅에 펍 주저앉아서 예사로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벽적인 일본 사람의 눈에는 참으로 보기에 흉한 모양입니다. 도저히 호감을 얻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북합민족국의 수도 신경입니다. 더욱이 장소는 백화점 앞입니다. 조선 부인이란 것은 이와 같이 저급한 꼴을 하는가 하는 견본을 백화점 앞에 진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다른 민족으로부터 모욕을 받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러한 부인들만의 관념으로 끝나면 좋으나, 일반적으로 조선 부인은 그렇게 게으른 성격이라는 관념을 주기 쉽습니다...”<sup>29)</sup>

전반적으로 조선 여성에게 여성성을 강조하기보다 조선 남성, 나아가 일본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주체성을 완성할 것이 요청되었다. 이는 총후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태도와 성격이 요구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만선일보』에서 확인되는 “총후에 있는 여성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이는 “①성전에 폐하의 군대로서 출정할 군인을 길러서 내보내야 할 것. ②집안 살림을 맡아서 내외사를 물론 하고 남자의 일까지 맡아서 할 것. ③때로는 남자와 같이 방공이니 공장의 직공으로서 또는 들에 나가서 밭을 갈든지 하여 소위 산업 전사로서 증산보국의 중책을 져야 될 것” 등이었다. 이어서 “일본 내지인과 똑 같은 국민적 임무를 지게 된 여성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이는 “①우리보다 먼저 이를 체험한 내지인 여성의 좋은 점을 본받아야 하고, ②옛날 어진 어머니와 훌륭한 처로서 남의 표본이 되는 어른의 행한 것을 배워야 되고, ③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어를 배워야 되고 글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었다.<sup>30)</sup>

“...우리는 내지인과 같은 수준에 달하려면 적지 아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28) “조선 여성의 성격은 선천적으로 약한가, 명량성과 성격은 별 문제이다(하)”, 『만선일보』 1942.8.20.

29) “눈에 거슬리는 꼴을 남에게 보이지 말자, 조선 부인들은 특히 주의하자”, 『만선일보』 1942.6.13.

30) “훌륭한 황군이 됨은 어머니의 감화력, 먼저 어머니의 힘을 기르자”, 『만선일보』 1942.5.27.

렇게 함에는 우리의 가정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심은 주부, 즉 어머니요 처인 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으로 여기에 **조선의 여성은 그렇게 각성하고 노력 하여야 될 중대한 시기**입니다. 그러함에는 먼저 배우고, 다음에는 가르쳐야 됩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중에도 먼저 국어를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국민 최고의 영예인 병역 의무를 진 이상 이러한 중대한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조선의 어머니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sup>31)</sup> “...여성들은 점점 약진이니까 남자들이 하는 일은 못 한다고 시도해 볼 꿈도 꾸지를 앓으려고 한 것이 지금까지의 보편적인 폐단이 아니었는가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힘에 부친다는 것만이 이유가 아니었을 줄로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미에 대한 관념을 그저 섬약한 여성미에다 둔 것도, 원인의 하나로 되어 있을 줄로 생각이 드는 연고입니다. ...전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성전을 완수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들어서면 비로소 국민 생활의 약점, 고쳐야 할 점, **더욱 강조해야 할 점들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평시에는 아무렇게 생각되지 않는 여성미에 대한 관념, 자녀 교육 문제 등이 새로운 입장에서 시비가 되는 것**입니다...”<sup>32)</sup>

만주국에서 선계 어머니의 대립항은 언제나 내지 부인, 일본 여성, 총후 여성 등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사실상 1930-1940년대 일본과 조선에서도 유사했다. 만주국에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모성 담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는 안태윤의 지적대로, 전시체제기라는 사회구조를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모성의 식민화” 혹은 정치적인 도구화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sup>33)</sup> 이는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 개인성이나 자율성보다 가정 안에서 주부와 어머니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특히 군국의 어머니 혹은 총후 여성을 둘러싼 이미지와 담론은 여러 연구에서 논증되었듯이, 당시 다양한 미디어와 소설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생산되면서 유포되었던 조선 여성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sup>34)</sup>

31) “징병제 실시와 여성의 각오, 우리의 할 일부터 생각합니다”, 『만선일보』 1942.5.28.

32) “국민의 개로 운동과 여성으로서의 입장, 총후 여성은 이렇게 군세다(상)”, 『만선일보』 1942.8.13.

33) 안태윤, 2003, 「일제 말기 전시체제와 모성의 식민화」, 『한국여성학』 19(3), 81, 93-107쪽.

34) 권숙인, 2018, 「식민지 여자·제국의 주부·군국의 어머니: 『조선공론』 지면을 통해 본 재조(在朝) 일본인 사회의 젠더 담론」, 『일본비평』 18, 248-251쪽; 이상경, 2002, 「일제 말기의 여성 동원과

### 3. 자녀 교육과 공중 도덕

세 번째, 만주국에서 조선 여성이 아들을 낳아서 양육하고, 군인으로 키워내는 과정은 선계 어머니의 역할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었다. 자녀는 여성 자신의 소유이기보다 “국가, 폐하, 사회, 조국”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강조되었다. 남자 아이는 개별 가정의 “귀여운 아들”이 아니라 “병정, 장정, 간성”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는 존재였다. 이를 위해, “가정의 어머니”는 개인주의를 벗어나야 하는 동시에 “국가 관념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특히 조선 여성은 “조선의 가정에도 훌륭한 장정 있다”라는 사실을 일본 여성 혹은 “내지인 가정”을 모방하여 수행해야 하는 주체 위치였다고 할 수 있다.<sup>35)</sup> 『만선일보』 〈어머니차지〉 시리즈는 1942년 8월 2-9일 총 6회에 걸쳐 “징병제의 실시를 앞두고 장정을 가진 어머니에게”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sup>36)</sup>

“종래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남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하게 몸을 튼튼하게 하고 머리가 좋아 공부 잘하고 남한테 칭찬을 받는 자식을 길러내는 것을 가지고 유일한 가정 교육, 즉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국가라는 것을 또는 폐하라는 것을 마음에 넣지 않은 개인주의적 교육이었다. 물론 이러한 것은 과거의 우리들의 사회 전체가 그러하였던 것으로, 단지 어머니의 책임만은 아니겠지만은 징병제 실시를 불과 일 년 반에 앞두고 있는 가정의 어머니로서

‘군국(軍國)의 어머니’, 『페미니즘 연구』 2, 208-231쪽; 전미경, 2005, 「1920-30년대 ‘모성 담론’에 관한 연구: 『신여성』에 나타난 어머니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2), 99-110쪽; 신영희, 2007, 「식민지(植民地) 조선(朝鮮)에서의 징병제(徵兵制)와 “군국모성(軍國母性)”: 최정희(崔貞熙)의 1940-1945년 작품을 매개로」, 『대동문화연구』 59, 412-434쪽; 권명아, 2004, 「총후 부인, 신여성 그리고 스파이: 전시 동원 체제하 총후 부인 담론 연구」, 『상허학보』 12, 259-266쪽; 황익구, 2023, 「전시체제기 식민지 조선의 ‘총후’ 여성과 프로파간다: 잡지 『방송지우(放送之友)』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98, 155-165쪽.

35) “국가 관념이 없고선 병정은 못 길러낸다” 『만선일보』 1942.8.2; “조선의 가정에도 훌륭한 장정 있다” 1942.8.6; “장정의 육성은 내지인 식으로” 1942.8.7.

36) “국가 관념이 없고선 병정은 못 길러낸다” 『만선일보』 1942.8.2; “동족주의에서 탈각, 폐하의 아들로 연성” 1942.8.5; “조선의 가정에도 훌륭한 장정 있다” 1942.8.6; “장정의 육성은 내지인 식으로” 1942.8.7; “국가 목표 있으니 거리낌 없이 나갈 뿐” 1942.8.8; “묵은 환경에서 탈각, 우선 새 분위기를 조성” 1942.8.9.

아직도 이러한 구체제의 생각-자기 일가만 좋으면 남은 어쨌든지 좋다는, 이러한 국가를 모르고 사회를 모르는 교육 방침은 단연 포기하여야 될 것이다. 징병제 실시를 기회로 우리들은 단연 새로운 자제 교육 방침을 수립하여야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어머니는 국가 관념의 양성이 필요하다. 자기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개인주의적 사상에서 벗어나 좀 더 눈을 크게 떠서 사회라는 것, 국가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다…<sup>37)</sup> “…가정의 어머니도 자기의 귀여운 아들을 국가를 위하여 전장에 나가 싸우게 된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아들을 가진 어머니로서 가장 기쁜 일이 아니고 무엇일까? 물론 우리 조선 사람, 더구나 가정의 부인은 내지인 부인에 비교하여 펍 뒤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 근심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의 선조들 중에는 나라를 위하여 훌륭한 공적을 남기고 또는 여성으로서 아들을 나라에 바치고도 눈물 하나 흘리지 않은 내지인 어머니에 비교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는 어머니도 있었다…”<sup>38)</sup> **“훌륭한 장정을 전장에 보낼 수 있는 좋은 가정을 만들려면 우선 대선배인 내지인 가정과 만나 접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다 저렇다 혼자만 생각할 것 없이 실제로 내지인 가정에 들어가 직접 이를 본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은 장정을 길러내는 살 길이라고 믿는다. …가정의 어머니도 될 수 있는 대로 내지인 가정과 가까이 하여 내지인 생활의 좋은 곳을 본받는 동시에 그들의 장정 기르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sup>39)</sup>

선계 어머니의 아들 양육 및 교육은 구체적으로 인사, 대화, 말투, 행동, 자세, 태도, 예의 작법, 공중 도덕 등이었다. 특히 1942년 9월 17-30일 동안 「공중 도덕 십강(1-10)」과 그 후기가 연속적으로 게재되기도 했다.<sup>40)</sup> 조선 가정에서 어린이에

37) “국가 관념이 없고선 병정은 못 길러낸다”, 『만선일보』 1942.8.2.

38) “조선의 가정에도 훌륭한 장정 있다”, 『만선일보』 1942.8.6.

39) “장정의 육성은 내지인 식으로”, 『만선일보』 1942.8.7.

40) “아파트 생활도 정숙이 필요, 공중 도덕 십강 1”, 『만선일보』 1942.9.17; “복장은 격에 맞게 완피 쓰는 집에서만, 공중 도덕 십강 2”, 1942.9.18; “전차 마차를 탈 때도 체모를 차리자, 공중 도덕 십강 3”, 1942.9.19; “집회장에 들어서면 단체의 일원이 되라, 공중 도덕 십강 6”, 1942.9.22; “시간에 대한 관념은 돈에 대한 그것 같이, 공중 도덕 십강 8”, 1942.9.25; “배급을 타러갈 때는 시간이 알맞게 가라, 공중 도덕 십강 9”, 1942.9.27; “말은 인간 평가 척도, 조심해야 할 ‘용어’, 공중 도덕 십강 10”, 1942.9.29; “자기 입장에서만의 비판은 삼가자, 공중 도덕 십강 마치면서”, 1942.9.30. 그중에서 4, 5, 7편은 『만선일보』 영인본 지면에서 누락되어 있다.

게 인사 교육 혹은 “자녀 훈계”는 어디까지나 “부모의 행동”, 특히 “어머니의 책임”이었다. 그런데 만주국에서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는 “조선 부인의 예의 작법”은 “내지 부인”뿐 아니라 “만계 부인, 백계 로인” 등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세심한 인식과 강한 자각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조선 가정 안에서 인사와 대화, 행동뿐 아니라 사회적인 예의 작법과 공중 도덕까지 일상적으로 강조되었기 때문이다.<sup>41)</sup>

“똑똑한 사람 치고 인사를 분명히 하는 법입니다. 사람끼리 서로 대할 때 인사를 분명히 못 하는 사람은 벌써 똑똑한 사람이 못 된다는 인상을 주고 마는 것입니다. 인사는 것은 그와 같이 사람의 인격을 판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려서부터 습관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어머니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일동일정, 즉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이는 것은 곧 그 품 안에서 자라나는 아기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내지 부인들이 어린이에게 대해서 아무리 자기의 아들딸이라도 말하기 시작할만한 때에 「해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십시오」 하는 존경사를 쓰는 것은 어린이의 말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대단히 좋은 습관인가 합니다. **어려서 말을 배울 때부터 무엇보다도 자기 집안 사람이나 남에게 대하여 인사를 반드시 하는 습관을 붙여주는 것은 어머니의 책임입니다.**...”<sup>42)</sup> “자녀 훈계는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입으로만 흔한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 ...**부모가 자녀 지도할 때에 먼저 자기를 반성하는 정성이 없으면 자녀에게 감화를 줄 수 없고, 감화력이 없는 부모는 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없습니다.**...”<sup>43)</sup> “...일본 내지인의 입에서 조선 부인들은 예의를 몰라서 안 됐다는 말을 듣는다. **내지 부인의 예의 작법과 조선 부인의 예의 작법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까닭이다.** 그 일례를 들어보면, 일본 내지 부인은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현관에 나갔을 때에는 장지문을 열기 전에 무릎을 꿇고 장지문을 열고 공손히 머리를 숙인다. 그런데 **조선 부인은 선 채로 인사를 한다.** ...다음 전차 가운데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다른 사람으로부

41) “어린 자녀에게 인사를 분명히 시킵시다”, 『만선일보』 1942.5.31; “부모의 모든 행동은 자녀들이 본받는다”, 1942.7.5; “예의 작법과 인격”, 1942.5.29.

42) “어린 자녀에게 인사를 분명히 시킵시다”, 『만선일보』 1942.5.31.

43) “부모의 모든 행동은 자녀들이 본받는다”, 『만선일보』 1942.7.5.

터 자리의 사양을 받았을 때 일본 부인은 「고맙습니다」라고 하든지 「미안합니다」라고 반드시 사의를 표한다. 만계 부인도 「세세」라고 꼭 한다. 백계 로인은 「스바시—보」라고 한다. 그런데 **조선 사람 중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앉아서 시치미를 뚝다...**<sup>44)</sup>

『만선일보』 〈어머니차지〉 시리즈에서 선계 어머니에게 공중 도덕이 강조되었다는 점은 다른 민족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했다는 맥락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비일본인이 조선 여성에게 지배적 정체성의 본보기로 언급되는 경우는 부재했다. 만주국에서 선계 어머니의 행동 기준은 내지 부인, 즉 일본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만선일보』 모성 담론이 일본과 조선의 경우와 유사했다고 해서, 이에 대해 단순한 모방 혹은 복사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내지 부인이라는 이름의 과잉적인 반복은 완전한 일본 여성을 수행하지 못했던 조선 여성의 현실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보면, 복합민족으로 구성되었던 만주국에서 조선인의 주체 위치는 애매모호한 대상이었다. 대표적으로 “중간자” 혹은 “2등 국민”과 관련된 논쟁을 들 수 있다. 이는 요약하면, 재만 조선인이 다섯 개의 민족 범주 중에서 일본인 다음 혹은 유사한 위계질서에 존재했느냐, 아니면 이들이 이민자였는가 식민자였는가 하는 것이었다. 공식적으로 만주국은 독립국가였으며, 법적으로 재만 조선인은 일본인이었지만 민족적으로는 조선인이었다. 이들의 정체성은 일본인과 동질적이었던 동시에 비동질적이었으며, 만주국 안에서 “선계, 선인”으로 호명되었다.<sup>45)</sup> 이러한 논리 구조 안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동등성을 세세하게 따져보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다른 민족을 주변부 정체성으로 당연하게 간주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44) “예의 작법과 인격”, 『만선일보』 1942.5.29.

45) 윤휘탁, 2001, 「〈滿洲國〉의 ‘2等 國(公)民’, 그 實像과 虛像」, 『역사학보』 169, 147-168쪽; 한석정, 2007, 『(개정판)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괴뢰국의 국가효과 1932-1936』, 동아대학교 출판부, 179-190쪽; 이동진, 2012, 「만주국의 조선인: 디아스포라와 식민 사이」, 『만주연구』 13, 9-10, 18-44쪽.

#### 4. 시간 관리와 의식주

네 번째, <어머니차지> 시리즈에서 시간 혹은 시간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만주국의 선계 어머니, 즉 “가정의 주부”에게 일과표를 사용한 예정 생활의 필요성과 실천이 강조되었다. 일상생활에서 “하루의 일과표” 등이 예시로 등장하였으며, 동시에 불규칙과 비능률은 경계 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가정의 사무적 방면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어머니는 “건전하고 재미있는 가정”을 이끌기 위해 하루의 시간을 분 단위,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생활할 것이 요청되었다. 특히 조선 여성은 “시간에 대한 관념이 박약”하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었다. 시간 관리는 가정뿐 아니라 사회생활이나 공중 도덕의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sup>46)</sup>

**“가계에 예산이 필요하듯이 가사에는 예정이 근본입니다.** 가정 예산이 일 년을 바라보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과 같이 가사의 예정도 우선 일 년의 예정을 세우고 1월에는 어떻게 하고, 2월에는 무엇을 한다는 식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 또 일주일의 예정이 서고, 따라서 **하루의 일과표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하여 가계 예산과 가사 예정이 있는데, 비로소 **가정의 사무적 방면의 생활이 건전하게, 재미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수를 하고 식사 준비까지 20분. 방안의 소제, 식구가 다 같이 영리에 감사, 라디오 체조 이상 30분. 조반 30분. 출근 등교 준비 20분. 집안 전부의 소제 50분. 신문 읽는 것 10분. 세탁 한 시간. 주기적 또는 임시의 일(매일의 일정 외의 일로써 가정 재봉 수선 등) 두 시간. 점심 준비 30분. 그 뒤의 쉬기 20분. 공공의 시간(배급 기타) 두 시간. 아이를 위한 시간(간식 및 복습) 한 시간. 세탁한 것의 뒷일 등 한 시간 10분. 저녁 한 시간. 그것의 뒷일 30분. 아이들의 취침 30분. 주부의 시간(독서-기타) 한 시간 반. 집 앞의 단속 30분. 일일의 감사(가계 보기의 반성, 내일의 예정 등) 한 시간. 취침.”<sup>47)</sup> “...**어떻게 생각하면 조선 여성들이야말로 시간에 대한 관념이 너무나 박약한 것도 같습니다.** 여자가, 한 가정의 주부가 「도

46) “일과표를 사용하면 시간 여유가 생긴다. 예정 생활의 필요와 실천”, 『만선일보』 1942.8.15: “시간에 대한 관념은 돈에 대한 그것 같이, 공중 도덕 십강 8”, 1942.9.25.

47) “일과표를 사용하면 시간 여유가 생긴다. 예정 생활의 필요와 실천” 『만선일보』 1942.8.15.

나리구미가이」나 또 무슨 회에 참석을 하려면 혹은 어디 구경을 나간다 쳐도, 그것이 **딱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러한 곤란은 물리치고 **정각에 당도하도록 애를 쓸 만치 정성이 있어야, 비로소 공중 도덕상 교양이 높다는 평판을 들을 것입니다.**”<sup>48)</sup>

시간 관리와 연관되는 측면에서, 〈어머니차지〉 시리즈에서 의식주와 관련된 내용을 들 수 있다. 만주국에서 조선옷의 장점을 잘 살려서 활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조선인의 정체성을 과시하는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그렇지만 의복이 신체에 고정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조선옷이나 기모노를 언제든 갈아입는 것이 가능했다. 이화진의 지적대로, “제국의 다민족적 상상력 및 민족적 유동성”이 의복을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있었다.<sup>49)</sup> 음식에 관련된 내용은 “대두의 혼식 방법”이 소개되었다. 각종 식품에 대한 “혼식 방법, 짓는 법, 식용법, 영양가, 조리법” 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sup>50)</sup> 조선인에게 조선어와 조선옷뿐 아니라 조선 음식도 중요했다. 『만선일보』 가정 지면에서는 음식 및 요리와 연관된 기사와 이미지도 상당히 존재한다.

“만주에 와서 사는 조선 사람들의 문제거리의 하나가 이 복장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령 몇 해 전만 해도 조선옷을 걸치고는 행길로 나서길 꺼렸던 거북한 마음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는 생각 이하로 그때의 선계를 대하는 타민족의 감정이 좋지 못했었다고도 하겠지만, 조선인 자체의 성격이 약했던 것도 사실 일상 싫습니다. …조선 의복, 이것이 좋으니 나쁘니 비판은 여기서 피하겠습니다만은 하야간 **조선옷을 걸치게 되면 정말 조선옷의 장점을 잘 살려서 너무 칙칙한 것, 천하게 보이는 것 등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선옷에는 역시 고무신이 **격에 맞습니다.** 조선옷에다 맨발로 계다를 씹씩 끌고 다니는 것도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

48) “시간에 대한 관념은 돈에 대한 그것 같이, 공중 도덕 심장 8” 『만선일보』 1942.9.25.

49) 이화진, 2012, 「기모노'를 입은 여인: 식민지 말기 문화적 크로스드레싱(cultural cross-dressing)의 문제」, 『대중서사연구』 27, 231-234쪽.

50) “육류의 대용으로는 대두가 제일이다. 대두의 혼식 방법(상)”, 『만선일보』 1942.10.8: “짓는 방법에 따라 흰밥보다 월등 낫다. 대두의 혼식 방법(하)”, 1942.10.9.

다...”<sup>51)</sup> “얼마 전부터 「대두」=콩을 배급하고 있는데, 이것의 **혼식 방법과 짓는 법**을 모르거나 혹은 잘못하면은 일껏 좋은 것을 배급받으면서도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조선 사람이 그래 콩밥쯤의 짓는 법을 모르겠느냐고 하겠지만은, 이번 같이 대량으로 배급을 받게 되면 역시 **식용법에** 있어서 혼란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요즘 같이 실재 없이 새로운 식료품이 배급된다든지, 그것의 분량이 늘었다 줄었다 하게 되면 그 식료품의 **영양가나 조리법**을 알아서 먹는 법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이런 기회에 가정에서는 음식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종래와 같이 쌀이나 보리, 고기, 생선, 야채 같은 것에 필요 이상으로 애착을 갖지 말고 음식을 영양학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sup>52)</sup>

만주국에서 조선인의 집은 국가와 사회의 기초로 간주되면서, “국민 생활의 중심”이자 동질적인 민족이라는 “정신의 본질”이었다. 이는 부모가 선조와 양친을 생각하고 형제와 자매, 자녀와 결속하면서 나아가 자손까지 연결되는 감정이 생성되는 장소였다. 즉 집을 통해 ‘가정-민족-국가’가 연결된다는 논리였다. 그리고 “만주는 복합민족(複合民族)국가”이자 “오족이 한 나라 속에서 산다는 특수한 나라”였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는 아파트 안에서도 “선계의 공중 도덕”은 정체성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었다. 여기서 “선계의 태도에 고칠 점이 많다는 것”은 선천적이거나 본래적으로 그렇다기보다 외부적인 시선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한 것이기도 했다.<sup>53)</sup>

“집이라는 관념 내지 정신은 우리 국민 생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널리 인정되어 있는 것이다. ...어느 민족이든 간에 가정 생활을 이룸에 부자부부(父子夫婦)의 관계를 갖지 않음은 없다. ...그럼으로 **집은 조손이 서로 이어나가는 혈족적**

51) “복장은 격에 맞게 완피쓰는 집에서만, 공중 도덕 심강 2”, 『만선일보』 1942.9.18.

52) “육류의 대응으로는 대두가 제일이다, 대두의 혼식 방법(상)”, 『만선일보』 1942.10.8.

53) “집의 분지 발달이 대국가가 된다(상), 집에 대한 관념, 정신”, 『만선일보』 1942.6.10; “사람은 누구나 인정미를 갖도록(하), 집에 대한 관념과 정신”, 1942.6.12; “아파-트 생활도 정숙이 필요, 공중 도덕 심강 1”, 1942.9.17.

생활이며 동시에 정신적 존재이다. 곧 집을 생각한다 함은 양친을 생각하고 선조를 생각하고, 따라서 형제자매를 생각하며 또한 자손의 번영을 비는 마음이다. 이것이 우리 집이라고 하는 정신의 본질이다...”<sup>54)</sup>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 문제인데, 학교 생활은 누구나 한번은 통하지 않으면 아니 될 생활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연습 생활, 준비 생활, 즉 수양의 생활이므로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의 일원으로서 그런 것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특정한 방법으로서는 진행되는 생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사회의 대본(大本)이 집의 정신으로서, 근거로서 성립되었다고 하면 학교 교육 방침도 거기에 중점을 둘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학교 교육의 목적이 좋은 가정인을 만들고 좋은 국가사회인을 양성함에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sup>55)</sup> “만주는 복합민족국가입니다. 즉 만계, 일계, 선계, 한계 그리고 동계의 오족이 한 나라 속에서 산다는 특수한 나라입니다. 그럼으로 어느 곳을 가나 어떠한 회사를 가보나 각 민족이 책상을 같이 하고 한 집에서 사는 일이 혼잡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정답게 서로 부족한 점을 도와주며 의가 좋습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 가지로 생활방식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면서도 잘들 융합이 되어 지내는 걸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반성할 집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선계의 한 사람으로서 선계의 태도에 고칠 점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봤습니다. 남의 잘못만을 쳐들고 있는 것보다 그들보다 솔선해서 우리의 잘못을 고친다는 것, 그 마음의 태도부터가 얼마나 훌륭한 것이겠습니까. 걸핏하면 선계니까 별 수 있느냐는 듯이 타민족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온 것도 사실인데... 우리들 선계는 한번 공중 도덕이란 이런 것이라고 모범을 보여주고 싶습니다...”<sup>56)</sup>

만주국에서 조선인에게 집 문제는 정신적이고 관념적인 차원뿐 아니라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지역과 도시별로 상황이 상이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재만 조선인의 주택난”은 공통적인 것이었다. 문미라에 따르면, 이는 “인구의 대량 증가, 빈곤, 임대 기피, 가격 상승, 성비 불균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주택난은 “풍기문란 문제, 하숙난, 귀국

54) “집의 분지 발달이 대국가가 된다(상), 집에 대한 관념, 정신”, 『만선일보』 1942.6.10.

55) “사람은 누구나 인정미를 갖도록(하), 집에 대한 관념과 정신”, 『만선일보』 1942.6.12.

56) “아파트 생활도 정숙이 필요, 공중 도덕 심강 1”, 『만선일보』 1942.9.17.

심리”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만선일보』를 통해 본 조선인의 심각했던 주택난은 “신경, 봉천, 목단강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용정과 도문 등의 지방 도시”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sup>57)</sup>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만주국에서 조선 여성이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결혼을 통해 가정을 구성했던 가능성이나 비율은 어느 정도였을까 하는 물음도 가질 수밖에 없다. 1940년 『만선일보』에서 소개되었던, 신경에서 조선 여성의 직업은 “여점원, 찻집 아가씨, 부모, 댄서, 여급, 간호사, 여사무원, 타이피스트” 등이었다. 이는 여성의 직업이 신문사의 취재 대상이 될 정도로 드문 일이었으며, 그녀들이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와 빈약한 재정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민 도시 신경은 미혼 여성이 정착하기 힘든 곳”이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무업자”였다. 조선 여성이 이민자로서 정착하는 “거의 유일한 길은 남편을 통하는 것”이었다.<sup>58)</sup>

만주국의 수도였던 신경은 “건설 도시로서 남초 현상이 극심”했을 뿐 아니라, 그중에서도 “조선인 성비”는 1939년 이후 일본인과 중국인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이는 “남성 독신자 수가 많았음”을 드러내는 통계 지표로 볼 수도 있다. 고재봉은 『만선일보』 가정 지면에서, “부모 대신 육아를 담당해야 했던 아이의 모습” 등을 통해 이상적 이미지의 “결혼과 미달태”를 지적하기도 했다.<sup>59)</sup> 직업과 성비, 출산만으로 조선 가정의 분포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모성 담론의 반복적인 생산은 조선 여성에게 실현되기 어려웠지만, 그만큼 절실했던 대상이 가족과 가정이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진아에 따르면, 1940년 9월 28일-1941년 3월 25일 『만선일보』에서 총 104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부인평론” 시리즈에서는 이상적인 부인의 이미지가 형상화되었다. 요약하면, “부인의 천직은 가정에 있다”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신이

57) 문미라, 2017, 「만주국 도시의 재만 조선인 주택 문제: 『滿鮮日報』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1, 171-186쪽.

58) 김경일·윤휘탁·이동진·임성모, 2004, 앞의 책, 263-267쪽.

59) 김경일·윤휘탁·이동진·임성모, 2004, 위의 책, 206-214쪽; 고재봉, 2022, 앞의 논문, 20쪽.

여성을 창조할 때 남자에 비하여 여자에 그러한 천직을 맡긴 것이 모든 생리적 조건이었으며, 여성의 역할은 “오로지 남편을 도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아해를 잘 양육하는 데 있다”라고 일관적으로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1940년 1월 1-10일 총 7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여성의 입장에서 본 만주 조선인 생활”에서는 임신과 육아, 가정 경제와 주택 문제, 생활 필수품 등 가정 부인의 입장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고민이 공유되었다.<sup>60)</sup>

『만선일보』 1942년 7월 28일자 <어머니차지>의 제목은 「재만 처녀들의 결혼과 그 선택, 낙토 만주 건설과 결혼 문제」였다. “재만 처녀”, 즉 “만주에 와 있는, 결혼기에 든 처녀들”은 “추상적인 이상에 빠지기 쉬운 것”이 커다란 문제라는 것이었다. 보통의 경우, “씩씩하고도 미남이고 얌전하고 남한테 빠지기는커녕 되려 남을 제쳐놓을 만한 사람”이 처녀들의 이상형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민자 사회에서, “만주에 있는 청년들은 모두 믿을 수가 없다는 선입관념”도 만연했다는 것이다. 이에 만주국에서 “동아공영권 건설에 한몫을 단단히 할 제2세들을 놓을 가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사상을 가진 청년 남녀들의 결합”이 장려되었다.<sup>61)</sup>

## 5. 질병 문제

마지막으로, 조선 가정에서 질병의 예방과 관리는 생존과 연결되는 주제였으며, 특히 선계 어머니의 역할이 세심하게 필요한 영역이었다. <어머니차지> 시리즈에서는 결핵, 적리, 폐스트의 예방 및 치료뿐 아니라 환절기 주의사항 등이 언급되었다. 다른 민족보다 많은 “선계의 결핵”과 그 사망률은 만주국의 조선인에게 심각한 고민이었다. 1942년 여름 “일계, 만계, 내지인, 조선인” 중에서 조선인의 “결핵 환자수”는 월등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인에게 결핵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었으며, 일상생활에서 거의 “모든 것이 합쳐져 저항력을 소모

60) 이진아, 2024, 앞의 논문, 101-114쪽.

61) “재만 처녀들의 결혼과 그 선택, 낙토 만주 건설과 결혼 문제”, 『만선일보』 1942.7.28.

시키고 결핵증이 시작되는 원인”이 발생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중요하게 지적되었던 일조량이나 공기의 질, 야채의 섭취량 등은 가정 부인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완전하게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다.<sup>62)</sup>

“대체 자기의 몸과 마음의 건전한 생리적 기능을 파괴하고 저항력을 약하게 하는 모든 동기는 거의 다 결핵 발병의 동기로 되지 않음은 없다. 이것의 동기로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만주 생활 속에서 주어보자. …사실로 만주에서의 결핵 발병의 동기는 지극히 복잡하여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드디어 저항력을 소모시키고 결핵증이 시작되는 원인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단순히 한 가지만을 들고 결핵 발병의 원인이라고 봄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만주 생활의 특징은 동기(冬期) 생활이므로 보건 생활상의 결함을 동기 생활에서 찾아보면 다음의 모든 점에 요약된다. ①약 반년에 걸치는 고온칩거(高溫蟄居) 생활. ②일광 또는 좋은 공기에 충분히 친하지 않기 때문에 ③야채 가동기는 부족하고 또한 값이 폭등하여 이것을 구하기 힘들어 섭취량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인정된다.”<sup>63)</sup>

모든 연령의 결핵 중에서도 조선 아동과 청년의 결핵에 대한 고민은 선계 어머니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었다. 먼저 “만주에서 자라는 청년에 협장형(狹長型) 체질”이 많았다. 이는 “키가 크에 대하여 가슴둘레가 좁고 뼈와 근육이 약하여 한번 척 보아 약하게 보이는 체질”이었다. 이러한 상태는 “근육 노동에는 견딜 수 없는 몸”이면서, “정신적으로도 의지가 약하여” “폐결핵의 좋은 온상”이었다. 협장형 체질은 청년기에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기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재만 아동의 성장이 내지 아동과 다른 특색”에 대해 가정에서 선계 어머니가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조선 청년의 “심신의 지나친 피로”와 “정신 불안”, “신경쇠약” 역시 결핵의 여러 요소로서 지적되었다.<sup>64)</sup>

62) “타민족보다 많은 놀라운 선계의 결핵 1”, 『만선일보』 1942.7.8: “결핵 발병의 동기는 동계 보건 위생의 결함 2”, 1942.7.9: “청년기의 정신 불안은 「청년과 결핵」의 온상 3”, 1942.7.10.

63) “결핵 발병의 동기는 동계 보건 위생의 결함 2”, 『만선일보』 1942.7.9.

64) “결핵 발병의 동기는 동계 보건 위생의 결함 2”, 『만선일보』 1942.7.9: “청년기의 정신 불안은 「청년과 결핵」의 온상 3”, 1942.7.10.

만주국에서 여름철에는 남녀노소를 포함하여, 조선 아동에게 만연했던 “적리병” 역시 문제였다. 이는 음식물 섭취와 직결되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식생활에서 “가정 주부들의 부주의한 책임”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만약 선계 어머니가 자녀에게 계획 없이 음식물을 내주게 되면, 폭음폭식으로 인해 위장병이 발생하고, 적리균이 전염되면서 적리병에 걸리기 때문이었다. 조선인의 입장에서, 만주국의 전염병 중에서 “페스트”가 가장 두려운 대상이었다. 이는 “전염병 중에서도 제일 악성”이면서, 특히 방역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름과 가을 환절기의 “소화불량증”, 아동의 “구루병”도 언급되었다. 이를 위해, 조선 가정에서 환기와 위생, 일조량 등이 강조되었다.<sup>65)</sup>

“...남녀노소를 물론 하고 국토에 대유행을 하고 있는 적리병(赤痢病), 즉 이증으로 말미암아 특히 소아들의 사망률을 많이 내고 있어 각 가정에 큰 공황을 던져주고 있다. ...그 전염되는 경로가 복잡한데... 대개가 생명물을 폭음폭식하는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가정 주부들의 부주의한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다. 무지한 소아들이 음식물을 보는 대로 요구할 때에 그 어머니 되는 분은 그대로 내준다. 그러면 그 아해는 구미대로 무작정 폭음폭식을 하게 되어 위장이나 장이 식상케 되어 위장병을 일으키게 되며 생명물에 부착되었던 적리균이 경구적(經口的)으로 장에 침범, 전염되면 즉시 적리병이 발생케 된다.”<sup>66)</sup> “전염병 중에서도 제일로 겁나는 것이 이 페스트(흑사병)이라 함은 이제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병이 무서운 줄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병의 예방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한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페스트는 「페스트균」에 의하여 전염되는 병으로 전염병 중에서도 제일 악성이라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대개는 죽게 되니까 이 병에 걸린 후에 당황하여 치료를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미리미리 정신을 차리어 예방에 힘쓸 것이 중요하고, 더욱이 페스트에는 방역에 힘쓰는 것밖에 별로 길이 없는 것입니다...”<sup>67)</sup> “...여름철에는 병이 흔한 법인데, 소화불량증 같

65) “여름 병중의 총아, 적리의 가정요법(상)”, 『만선일보』 1942.7.24; “페스트 방역에 협력을 하자면 치료보다 예방이 제일이다”, 1942.8.16; “환절기에 처할 일반적인 주의”, 1942.9.4.

66) “여름 병중의 총아, 적리의 가정요법(상)”, 『만선일보』 1942.7.24.

67) “페스트 방역에 협력을 하자면 치료보다 예방이 제일이다”, 『만선일보』 1942.8.16.

은 질환 때문에 체력이 감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아이들, 어른들은 가을철에 들어섰으니 여름철에 쇠약하고 피로한 것을 회복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태양을 많이 쬐어야 할 것입니다. …주택난이 심한 신경 같은 곳에서는 급작스럽게는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일광이 안 들어가는 집엔 의사가 들어간다」라는 속담과 같이… **지금부터 가급적 주택의 위생에 마음을 써야 할 것입니다. …만주에서 구루병이 제법 많은 것도 겨울에 아이들이 일광을 쬐일 기회가 적어서인 것입니다.**”<sup>68)</sup>

1930-1940년대 만주국에서 조선 여성에게 모성 담론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구성되었다. 즉 모성은 생물학적인 의미뿐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담론구성체이기도 했다. 이는 『만선일보』 〈어머니차지〉 시리즈에서 일본어, 자세와 태도, 성격, 출산과 양육, 교육, 공중 도덕, 시간 관리, 의식주, 건강과 질병 등을 통해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다양하게 생산되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만주국에서 일본 여성이 모성의 표준 혹은 규범으로 설정되면서, 조선 여성이 내지 부인이라는 대립항을 모방하고 도달해야 하는 미완의 존재방식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이 모성 담론의 핵심이었다. 이는 제국과 식민지의 모성 담론과 유사하게 겹쳐지면서도, 만주국의 오족협화라는 이데올로기 안에서 선계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민족과 젠더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만주국의 모성 담론에 대해 『만선일보』를 통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1942년 5-10월에 게재되었던 〈어머니차지〉 시리즈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만선일보』 가정 지면에서는 복합민족국가 만주국으로 이주했던 1930-

68) “환절기에 처할 일반적인 주의”, 『만선일보』 1942.9.4.

1940년대 조선 가정의 모습이 총체적으로 형상화되었다. 〈어머니차지〉 시리즈는 모성과 관련해서 가장 장기적으로 연재되었던 시리즈 기사였다. 여기서 조선 여성은 선계 어머니로서 위치와 역할이 부여되었다. 그녀들에게 의식주를 담당하는 아내 역할과 양육/교육을 수행하는 어머니로서 의무 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차지〉 시리즈에서는 조선 여성이 언어와 예절, 의식주, 교육, 시간, 질병 등을 관리하는 각종 규범과 지침 등이 세세하게 제공되었다. 동시에 이들에게는 내지 부인과 내지 어머니, 즉 일본 여성이 지배적 정체성의 본보기로 언급되었다. 조선 여성의 단점과 약함, 보완사항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어머니차지〉 시리즈를 통해 조선 여성은 일본 여성을 모방하면서 새롭게 거듭날 것이 요청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30-1940년대 『만선일보』 모성 담론 중에서 〈어머니차지〉 시리즈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렇지만 『만선일보』 가정 지면에서 모성이나 모성애, 어머니 역할과 관련된 다른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리고 만주국의 모성 담론에 대해 페미니즘 이론을 통한 거시적인 설명이나 동아시아 모성 담론과 함께 비교사적 시각에서도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만주국과 젠더 연구라는 맥락에서 계속 축적되어야 할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다른 연구를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 [자료 1] 『만선일보』 〈어머니차지〉 시리즈 기사 목록

| 날짜           | 제목  | 필자명  | 비고 |
|--------------|---|------|----|
| 1942. 5. 27. | 훌륭한 황군이 됨은 어머니의 감화력,<br>먼저 어머니의 힘을 기르자    | X    |    |
| 1942. 5. 28. | 징병제 실시와 여성의 각오,<br>우리의 할 일부터 생각합니다        | X    |    |
| 1942. 5. 29. | 예의 작법과 인격                                 | 菅原素潮 |    |
| 1942. 5. 31. | 어린 자녀에게 인사를 분명히 시킵시다                      | X    |    |
| 1942. 6. 2.  | 국어를 배웁시다                                  | 菅原素潮 |    |
| 1942. 6. 3.  | 부인과 근로,<br>개로 보국 운동 등해 단련하자               | X    |    |
| 1942. 6. 4.  | 가정 교육의 정도를 기하야                            | 菅原素潮 |    |
| 1942. 6. 5.  | 통제 경제에 협력합시다                              | X    |    |
| 1942. 6. 7.  | 인고의 소유자, 일본의 어머니                          | X    |    |
| 1942. 6. 10. | 집의 분지 발달이 대국가가 된다(상),<br>집에 대한 관념, 정신     | X    |    |
| 1942. 6. 12. | 사람은 누구나 인정미를 갖도록(하),<br>집에 대한 관념과 정신      | X    |    |
| 1942. 6. 13. | 눈에 거슬리는 꼴을 남에게 보이지 말자,<br>조선 부인들은 특히 주의하자 | 菅原素潮 |    |
| 1942. 6. 14. | 일본인과 국어                                   | 菅原素潮 |    |
| 1942. 6. 16. | 내지 부인을 모범하야 광영의 날을 맞읍시다                   | X    |    |
| 1942. 6. 17. | 군국의 어머니라함은?                               | 菅原素潮 |    |
| 1942. 6. 18. | 바른 전시하 생활을 부인의 힘으로 하자                     | X    |    |
| 1942. 6. 20. | 우리의 명예 향상을 부인의 힘으로 하자                     | X    |    |
| 1942. 6. 21. | 가정 화락의 중점은 말소리를 말아라 1                     | X    |    |
| 1942. 6. 23. | 가정의 행복은 서로 이해함에 있다 2                      | X    |    |
| 1942. 6. 24. | 참된 적자를 얻는 데는 가계를 살림이 긴요                   | X    |    |
| 1942. 6. 25. | 장정 지배의 예의는 고정적이면 무의미                      | X    |    |
| 1942. 6. 26. | 예도 현대화하려면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 X    |    |
| 1942. 6. 27. | 가정을 다시 인식, 숨은 사랑을 찾자                      | X    |    |
| 1942. 6. 28. | 가정의 봉사는 단체 봉사력을 양성                        | X    |    |
| 1942. 6. 30. | 청소년은 반군인이다, 규율적 행동 양성하라,<br>장정 제군에게 바람(상) | X    |    |
| 1942. 7. 2.  | 가정 교육의 중점은 상벌을 분별할 것                      | X    |    |
| 1942. 7. 3.  | 마님 교육의 목표도 전체 향상에 두도록                     | X    |    |

|              |                                      |                           |  |
|--------------|--------------------------------------|---------------------------|--|
| 1942. 7. 4.  | 현모양처 되려면 인격 도야에 힘쓰라                  | X                         |  |
| 1942. 7. 5.  | 부모의 모든 행동은 자녀들이 본받는다                 | X                         |  |
| 1942. 7. 7.  | 감정을 잘 조절하여 인간미를 풍부히 하라               | X                         |  |
| 1942. 7. 8.  | 타민족보다 많은 놀라운 선계의 결핵 1                | 의학박사<br>吉積泰               |  |
| 1942. 7. 9.  | 결핵 발병의 동기는 동계 보건 위생의 결함 2            | 의학박사<br>吉積泰               |  |
| 1942. 7. 10. | 청년기의 정신 불안은 「청년과 결핵」의 온상 3           | 의학박사<br>吉積泰               |  |
| 1942. 7. 11. | 가정에서의 이해를 사회에서도 응용하자                 | X                         |  |
| 1942. 7. 12. | 서로 간섭 않는 주의는 가정을 명랑케 한다              | X                         |  |
| 1942. 7. 14. | 일반 가정에서도 방첩에 협력하자(상)                 | X                         |  |
| 1942. 7. 15. | 일반 가정에서도 방첩에 협력하자(하)                 | X                         |  |
| 1942. 7. 17. | 대동아전쟁 하의 새로운 인습과 도덕                  | X                         |  |
| 1942. 7. 18. | 일어는 동아의 표준어, 국어 보급에 협력하자(상)          | X                         |  |
| 1942. 7. 19. | 일어는 동아의 표준어, 국어 보급에 협력하자(하)          | X                         |  |
| 1942. 7. 21. | 「배우자」의 표어는 어머니들의 절규이다                | X                         |  |
| 1942. 7. 22. | 결전 생활 속에서도 교양의 육성이 필요(상)             | X                         |  |
| 1942. 7. 24. | 여름 병중의 총아, 적리의 가정요법(상)               | 한 의사 襄元植                  |  |
| 1942. 7. 25. | 여름 병중의 총아, 적리의 가정요법(중)               | 한 의사 襄元植                  |  |
| 1942. 7. 26. | 여름 병중의 총아, 적리의 가정요법(하)               | 한 의사 襄元植                  |  |
| 1942. 7. 28. | 재만 처녀들의 결혼과 그 선택,<br>낙도 만주 건설과 결혼 문제 | X                         |  |
| 1942. 7. 29. | 저축 운동의 협력은 주방 경제 절약에서                | X                         |  |
| 1942. 8. 2.  | 국가 관념이 없고선 병정은 못 길러낸다                | 개척총국<br>제이과 과장<br>永井孝治    |  |
| 1942. 8. 5.  | 동족주의에서 탈각, 폐하의 아들로 연성                | 흥농합작사중<br>양회 OO과장<br>朱宗坪魯 |  |
| 1942. 8. 6.  | 조선의 가정에도 훌륭한 장정 있다                   | 계림분회평의<br>원 黃斗珍           |  |
| 1942. 8. 7.  | 장정의 육성은 내지인 식으로                      | OO총국사무관<br>盧起燕            |  |

|              |   |                            |  |
|--------------|---|----------------------------|--|
| 1942. 8. 8.  | 국가 목표 섰으니 거리낌 없이 나갈 뿐                       | 전매총국OO<br>과장 尹明善           |  |
| 1942. 8. 9.  | 목은 환경에서 탈각, 우선 새 분위기를 조성                    | 협화회중앙본<br>부 보도부 참사<br>公山裕夫 |  |
| 1942. 8. 13. | 국민의 개로 운동과 여성으로서의 입장,<br>총후 여성은 이렇게 굳세다(상)  | X                          |  |
| 1942. 8. 14. | 남자들을 야단치는 여성들의 천국 건설,<br>총후 여성은 이렇게 굳세다(하)  | X                          |  |
| 1942. 8. 15. | 일과표를 사용하면 시간 여유가 생긴다,<br>예정 생활의 필요와 실천      | X                          |  |
| 1942. 8. 16. | 페스트 방역에 협력을 하자면<br>치료보다 예방이 제일이다            | X                          |  |
| 1942. 8. 18. | 공중 도덕을 지키면 인격을 짐작케 한다                       | X                          |  |
| 1942. 8. 19. | 조선 여성의 성격은 선천적으로 약한가(상)                     | X                          |  |
| 1942. 8. 20. | 조선 여성의 성격은 선천적으로 약한가,<br>명랑성과 성격은 별 문제이다(하) | X                          |  |
| 1942. 8. 23. | 대해전이 벌어졌던 솔로몬이란 곳은?<br>여기도 영의 손은 뻗었다        | X                          |  |
| 1942. 9. 4.  | 환절기에 처할 일반적인 주의                             | 신경OOO병원<br>장 岡O            |  |
| 1942. 9. 17. | 아파-트 생활도 정숙이 필요,<br>공중 도덕 십강 1              | OO아파-트<br>金福實              |  |
| 1942. 9. 18. | 복장은 격에 맞게 완피쓰는 집에서만,<br>공중 도덕 십강 2          | 가정 부인<br>朴英姬               |  |
| 1942. 9. 19. | 전차 마차를 탈 때도 체모를 차리자,<br>공중 도덕 십강 3          | OOOOO<br>李家淑子              |  |
| 1942. 9. 22. | 집회장에 들어서면 단체의 일원이 되라,<br>공중 도덕 십강 6         | OOOOO<br>高順子               |  |
| 1942. 9. 25. | 시간에 대한 관념은 돈에 대한 그것 같이,<br>공중 도덕 십강 8       | 金川O                        |  |
| 1942. 9. 27. | 배급을 타러갈 때는 시간이 알맞게 가라,<br>공중 도덕 십강 9        | OOO配給所長<br>長谷川新吾           |  |
| 1942. 9. 29. | 말은 인간 평가 척도, 조심해야 할 “용어”,<br>공중 도덕 십강 10    | 豊川幸子                       |  |
| 1942. 9. 30. | 자기 입장에서만의 비판은 삼가자,<br>공중 도덕 십강 마치면서         | X                          |  |

|              |                                       |   |  |
|--------------|---------------------------------------|---|--|
| 1942. 10. 8. | 육류의 대용으로는 대두가 제일이다,<br>대두의 혼식 방법(상)   | X |  |
| 1942. 10. 9. | 짓는 방법에 따라 흰밥보다 월등 낫다,<br>대두의 혼식 방법(하) | X |  |

## 참고문헌

### 1. 자료

『만선일보』 1942년 5월 27일~10월 9일

### 2. 단행본

김경일·윤휘탁·이동진·임성모, 2004, 『동아시아의 민족 이산과 도시: 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역사비평사

김병기, 2012, 『김동삼: 만주지역 통합운동의 주역』, 역사공간

김수진, 2009, 『신여성, 근대의 과잉: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 담론과 젠더정치, 1920-1934』, 소명출판

김주용, 2018, 『한국독립운동과 만주: 이주·저항·정착의 접이지대』, 경인문화사

나카미 다사오(中見立夫) 외, 박선영 역, 2013, 『만주란 무엇이었는가』, 소명출판

두아라, 프래신깃트(Duara, Prasenjit), 한석정 역, 2008,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

박영석, 2010, 『만주지역 한인사회와 항일독립운동』, 국학자료원

박환, 2014,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박환, 2016, 『(만주벌의 항일영웅)김좌진』, 선인

버틀러, 주디스(Butler, Judith), 이승준 역, 2026, 『중요한 몸: 성의 담론적 한계에 관하여』, 알렘

서증석, 2002,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윤휘탁, 2013, 『滿洲國: 植民地の 想像이 잉태한 '複合民族國家』, 혜안

한석정, 2007, 『(개정판)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괴뢰국의 국가효과 1932-1936』, 동아대학교 출판부

황민호, 2005, 『일제하 만주지역 한인사회의 동향과 민족운동』, 신서원

### 3. 논문

고재봉, 2022, 「《만선일보》 소재 아동문학과 삽화가 만들어낸 국민 표상의 의미 연구」, 『비평문학』 85

권명아, 2004, 「총후 부인, 신여성 그리고 스파이: 전시 동원 체제하 총후 부인 담론 연구」, 『상허학보』 12

권숙인, 2018, 「식민지 여자·제국의 주부·군국의 어머니: 『조선공문』 지면을 통해 본 재조(在朝) 일본인 사회의 젠더 담론」, 『일본비평』 18

- 김영주, 2013, 『『滿鮮日報』의 젠더적 특성과 의미: 수기와 시를 중심으로』, 『어문학』 120  
문미라, 2017, 「만주국 도시의 재만 조선인 주택문제: 『滿鮮日報』 기사를 중심으로」, 『한  
국민족운동사연구』 91
- 사책, 2023, 「1940년대 『만선일보』의 조선문학 건설 담론에 대한 연구: 『滿洲朝鮮文學建  
設新提議』의 제기 동인(動因)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35
- 신영희, 2007, 「식민지(植民地) 조선(朝鮮)에서의 징병제(徵兵制)와 “군국모성(軍國母性)”:  
최정희(崔貞熙)의 1940-1945년 작품을 매개로」, 『대동문화연구』 59
- 안태운, 2003, 「일제 말기 전시체제와 모성의 식민화」, 『한국여성학』 19(3)
- 유수정, 2024, 「『만선일보』 ‘국어’란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83
- 윤희탁, 2001, 「〈滿洲國〉의 ‘2等 國(公)民’, 그 實像과 虛像」, 『역사학보』 169
- 이동진, 2005, 「민족, 지역, 섹슈얼리티: 만주국의 조선인 ‘성매매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국학』 28(3)
- 이동진, 2012, 「만주국의 조선인: 디아스포라와 식민 사이」, 『만주연구』 13
- 이상경, 2002, 「일제 말기의 여성 동원과 ‘군국(軍國)의 어머니」」, 『페미니즘 연구』 2
- 이진아, 2024, 『『만선일보』 여성 담론 연구: 여성 시리즈 기사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83
- 이화진, 2012, 「‘기모노’를 입은 여인: 식민지 말기 문화적 크로스드레싱(cultural cross-  
dressing)의 문제」, 『대중서사연구』 27
- 전경선, 2024, 「전시 『滿鮮日報』의 보도와 체제 협력: 東南部治安肅正工作에 대한 후원을  
중심으로」, 『역사와 세계』 65
- 전경선, 2025, 「전시 만주국의 국책사업과 『滿鮮日報』의 행보」, 『만주연구』 40
- 전미경, 2005, 「1920-30년대 ‘모성 담론’에 관한 연구: 『신여성』에 나타난 어머니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2)
- 조윤정, 2024, 「만주 이주 전후 현경준의 연보 보원과 『만선일보』 소재 교육 논설의 발굴」,  
『현대문학의 연구』 83
- 조정우, 2020, 「‘불령선인’에서 ‘개척의 전사’로: 중일전쟁 이후 조선인 만주이민정책의  
재편」, 『만주연구』 30
- 천춘화, 2024, 「홍길동의 울도국 ‘만주’: 『만선일보』 연재 『홍길동전』 연구」, 『한국현대  
문학연구』 74
- 최현식, 2025, 「이수형과 만선일보」, 『만주연구』 40
- 황익구, 2023, 「전시체제기 식민지 조선의 ‘총후’ 여성과 프로파간다: 잡지 『방송지우(放  
送之友)』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98
- 휴어드, 리하일라 G., 2023, 「1937-1942년 『만선일보』 소재 ‘만주조선문학’ 저술」, 『만주  
연구』 35

■ Abstract ■

Maternal Discourse in the *Manseon Ilbo*  
: A Study Centered on the “Mother’s Role” Series

Lee, Jin-A(Dong-A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discourse on motherhood in Manchukuo under Japanese imperial rule. Specifically, it focuses on the “Mother’s Role” series published in the *Manseon Ilbo* from May to October 1942. The newspaper’s household section presents a comprehensive portrayal of Korean households that had migrated to the multiethnic state of Manchukuo in the 1930s and 1940s. Among its features, the “Mother’s Role” series was the longest-running series of articles on motherhood. Korean women were assigned the position and role of *seonggye* (normative/ideal) mothers, with strong emphasis placed on their responsibilities as wives managing food, clothing, and shelter and as mothers responsible for childrearing and education. The series also provided detailed norms and guidelines on various aspects of everyday life, including language use, etiquette, domestic routines, education, time management, and health. At the same time, Japanese women—framed as “mainland” wives and mothers—were presented as exemplars of the dominant identity, while Korean women were evaluated in terms of their shortcomings and needs for improvement. Through the “Mother’s Role” series, Korean women were expected to remake themselves by imitating Japanese women.

Key words: *Manseon Ilbo*, Manchukuo, motherhood, *seonggye* mother, Japanese women